

南北戰爭以後 美國南部經濟의 變貌, 美國南部經濟의 發展 其二：1860~1880*

梁 東 杰**

<目 次>

- I. 머 리 말
- II. 既存研究의 檢討
- III. 南部經濟의 停滯要因 分析
- IV. 맺 음 말

I. 머 리 말

필자는 年前에 1840~60년간 美國 南部經濟의 추이를 개관하고, 사회구조와 부의 분배, 자원배분의 효율성, 공업화의 지연의 순으로 최근의 經濟史學界의 研究를 검토한 후 이 시기를 再解釋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자 하였다[梁東杰 (1987)]. 이 글은 그 곳의 논의들이 어차피 1860~80년간의 남북경제를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巨視的 指標로 볼 때 같은 기간 1인당 所得이 북부의 경우 연평균 1.9%로 성장한 반면 남부는 -0.8%를 기록하고 있다. 즉 南北戰爭을 分岐點으로 하여 남부와 북부의 경제사정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전쟁 중 파괴에서 회복한 北部經濟는 급속히 成長하여 1880년에 이르면 1인당 소득이 1860년의 두 배 가까이 이른다. 그러나 南部의 경우 15년간의 복구사업에도 불구하고 1880년의 1인당 소득이 아직 1860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南部經濟의 停滯를 설명하는 것은 경제사학계의 오랜 難題였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가설들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 棉花에 대한 世界需要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棉花過剩生産, 노예해방에 따른 흑인여성 및 아동 노동공급의 감소, 플랜테이션농업의 붕괴 등이며, 물론 그 裏面에는 노예제의 유산, 계급관계와 착취,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력의 재분배 등 더 根本的인 說明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된 것들이며, 이하에서는 주

* 이 글의 초고는 1990년 2월 美國史研究會와 韓國經濟學會에서 각각 발표되었음.

** 本究研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로 경제적인 설명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II節), 1인당 소득을 각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그 下落要因을 식별하려는 시도를 행한다(III節). 이 시기 남부경제에 차지하는 農業의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이 농업에 맞추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 節에서는 경제적 분석으로만 접근하기 곤란한 階級關係, 社會構造 등의 이해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既存研究의 檢討

南部의 停滯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호소력 있는 見解는 아마도 남북전쟁에 책임을 두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戰爭 중 파괴가 대부분 남부에 집중되었고 그 규모가 매우 컸음을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연구들은 남부의 總私有財産의 40%인 11억 달러가 破壞되었다고 推定했다. 역사가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推定資料로 1870년 센서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870년 센서스가 자본스톡의 크기를 過小評價하는 결함이 있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추정한 전쟁으로 인한 비용은 정확하다고 믿기 어렵다. 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추정한 최근의 연구들은 전쟁의 경제적 비용을 「直接」 및 「間接」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다[Goldin and Lewis (1975; 1978)]. 「直接費用」은 戰費, 徵用費用, 破壞된 資本費用이 주요 항목이며 이들을 1861년의 물가수준으로 現在價値化하여 구한다. 특히 자본비용의 추계에 있어 1870년 센서스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1880년의 센서스에서 逆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間接費用」은 간접적인 추정에 의한 것으로, 전쟁이 없었을 경우의 戰後 消費水準과 실제의 소비수준의 차이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假定은 「전쟁이 없었을 경우 경제는 戰前의 成長率을 지속했으리라」는 것이다. 假想消費의 계산에 있어서 1839~60년간의 연평균 成長率의 平均이 사용되었다. 간접추정에 따르면 북부는 1879년 이후 가상소비가 실제소비수준에 다다르게 되므로 1879년 이후의 間接費用은 0이 된다. 반면에 남부는 1909년까지도 가상소비가 실제소비수준을 능가하여 陽의 비용을 보이고 있다. 추정된 남북전쟁의 經濟的 費用은 <表 1>에 제시되어 있다. 直接費用과 間接費用이 差異를 보이는 것은 전쟁의 직접적 영향 외에 경제를 압박하는 二次的 影響 때문이다. 두 가지 비용을 비교할 때, 北部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1879년이면 극복한 것을 보인다. 반면에 南部는 양자가 심한 피리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전쟁의 여파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을 보인다. Goldin과 Lewis는 남부의 直接費用에 노예해방과 재건기의 변화상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았다. 1978년 논문에는 간접비용

〈表 1〉 南北戰爭의 經濟的 費用 (單位: 1860年 價格 10억 달러)

北 部		南 部	
直接費用	間接費用	直接費用	間接費用
3.3658	5.2255	3.2859	9.4785

資料: Goldin and Lewis(1975)에서 작성.

이 요인별로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총비용 94억 8천 달러 중 58억 5천 달러가 物的, 人的 자본의 파괴에 기인한다는 추정치를 근거로,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자본의 파괴가 남부의 經濟的 停滯의 主要因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전적으로 「南部가 戰前의 經濟성장을 지속했다면」이라는 反事實的 假定(counterfactual assumption)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Temin (1976)]. 그러나 일견 非歷史的인 것같은 이러한 가정은 직접적인 전쟁 파괴 이외에 전쟁 이후의 戰爭外的 要因의 변화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타의 가설, 특히 다음 節에서 언급될 플랜테이션체제의 붕괴 등과 兩立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물적, 인적 자본의 直接的 破壞보다는 남부경제를 長期的으로 抑壓하는 다른 要因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남부경제의 자원배분이 非效率的이라는 논의의 일환으로, 棉花에 대한 世界需要가 장기적으로 정체됨에도 불구하고 棉花單作體制를 고수하여 면화를 「過剩生産」한 것이 1865~80년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남부경제를 정체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는 논의가 있다. 이와 같은 「非合理性」은 한편으로는 奴隸制의 유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전쟁후 정착된 小作制下的 소작농들을 債務奴隸의 상태로 빠뜨린 독점적 상인, 고리대업자들이 換金作物栽培를 強要(Lock-in mechanism)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ansom and Sutch (1977)]. 그러나 단순히 면화생산의 증가가 남부경제의 自足性의 喪失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에도 무리가 따른다. 면화생산의 증가 여부는 地域的으로 볼 때에 매우 相異한 양상을 보이는데, 1860~80년 사이에 棉花栽培比率이 증가한 곳은 조지아주와 남캐롤라이나주였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옥수수와 면화의 생산이 모두 감소하였으므로 면화재배비율은 거의 일정하였다(〈表 2〉)[Temin (1983)]. 따라서 前後 南部 전체에서 면화생산의 비중이 戰前에 비해 增加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南部의 一部 지역에 局限된 현상이었던 것이다. 또 면화생산이 증가한 州에서도 면화의 재배비율이 증가한 곳은 戰前에 플랜테이션이 집중하였던 지역이 아니라, 산록(piedmont) 및 산간지역(upcountry)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면화생산이 증가했던 것은 戰後에 白人이 새로운 토양을 찾아 이들 지역으로 移住했던 것과 關聯이 있으며[Bode

〈表 2〉作物配合의 變化率

(單位: %)

州	1850~60年		1860~80年		1880~90年	
	옥 수 수	棉 花	옥 수 수	棉 花	옥 수 수	棉 花
알라바마	16	75	-24	-29	30	30
루이지애나	64	335	-43	-36	32	30
미시시피	30	148	-29	-26	22	20
조지아	2	41	-26	17	26	46
남캐롤라이나	-7	18	-22	48	17	43
남캐롤라이나+조지아	0	32	-24	27	23	45
미시시피+루이지애나 +알라바마	30	142	-29	-27	23	26
5個州	17	99	-27	-13	23	33

資料: Temin(1983, p.663).

and Ginter (1986)], 1870년대 이들 지역에서의 철도건설 및 시장판매조직의 정비가 이를 뒷받침했던 것으로 보인다[Weiman (1985)]. 南部 전체적으로도 전쟁후의 변화가 「過剩生産」되었다는 가설은 변화가격이나 수요의 변동에 따라 작물배합이 신속하게 조정되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檢證할 수 있는 것이며, 첫째 南北戰爭後 남부농민의 가격에 대한 反應速度는 북부 밀지역 농민의 반응속도와 비슷하였고, 둘째, 世界市場의 棉花需要는 1860년대 이후 감소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속도로 增加하였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돌보인다. [梁東傑 (1987, pp.119-26)].

노예해방에 따라 흑인여성 및 아동 노동의 供給이 대규모로 감소하여 전체 勞動供給이 28~37% 정도 줄어들었고 이것이 남부경제의 停滯의 主要因이라는 설명이 있다[Ransom and Sutch (1977)]. 주어진 남부농업의 생산함수하에서 資本·勞動比率의 현저한 감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1人當 所得의 감소는 노동공급의 감소나 면화생산의 효율성 상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인한 파피가 勞動對 다른 生産要素의 比率를 저하시키지 않았다면, 농업생산의 확장이 노동공급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 뒤 가축對 노동, 자본對 노동, 토지對 노동의 比率가 不變 내지 增加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870년 센서스가 자본파피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등 믿을 만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資本波壞費用은 과장되었다고 하고, 철도 등 수송시설이 1870년대에 이미 戰前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1870년 實質 노세價格이 1850년대보다 낮음을 근거로 농업자본의 부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 勞動力參加率이 1870년 센서스 原資料에 의거한 결과 46~54% 감소하여 이는 노동공급을 17~24% 감소시켰고, 연평균 勞動日數의 경우 해방후 성인은 年 13~26日, 여성, 아동은 年 26日 감소하였으며, 이는 노동공급의 8~11%의 감소를 가져 왔다고 한

다. 1日勞動時間은 한 시간 감소했고 이는 9~10%의 勞動供給 減少를 가져오게 한다. 여성노동을 남자노동의 0.75, 아동은 0.67로 간주했을 때 위의 요인들은 노동공급을 28.3~37.2%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들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던 1870년 센서스에서 勞動力參加率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1880년 경의 노동공급을 過小推定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위의 논의에서와 같이 노동공급이 대규모로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南部經濟의 停滯는 棉花生産의 效率性 喪失에 더욱 크게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공급의 감소에 관한 논의는 다음 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III. 南部經濟의 停滯要因 分析

1인당 所得의 成長率은 그 정의상 노동자 1인당 產出增加率과 인구의 勞動力參加率의 成長率을 더한 것이며 이는 또한 각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항등식을 얻을 수 있다.

$$\dot{\bar{Y}} = \sigma_a(\dot{\lambda}_a + \dot{W}_a) + \sigma_n(\dot{\lambda}_n + \dot{W}_n) + \dot{p} \quad (1)$$

단 \bar{Y} 는 1인당 소득, σ_a , λ_a , W_a 는 각각 農業部門에서 창출되는 所得의 비중,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勞動力の 비중, 농업노동 1인당 產出量, σ_n , λ_n , W_n 은 각각 非農業部門에서의 그러한 비중 및 산출량, p 는 인구의 勞動活動參加率이며 방점은 성장률을 나타낸다. (1)식의 모든 변수의 값을 찾아낼 수는 없으나 1860~80년간 $\dot{\bar{Y}}$ 는 연평균 -0.8% [梁東傑 (1987, p.103, 表 1)]이며 <表 3>에 의하면 \dot{W}_a 는 -1.82% 임을 알 수 있다. σ_a 가 0.72라고 한다면 [Fogel and Engerman (1974, Vol. 2, p.450)] 농업부문의 生産性 下落 자체만으로 1인당 소득의 감소를 설명하고도 남게 된다.

$$\sigma_a \dot{W}_a = 0.72 \times 1.82 = 1.31 > 0.8 = \dot{\bar{Y}}$$

이것은 σ_a 를 더 낮게 가정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강력한 결론이라 생각되며 결국 農業勞動 生産性 하락요인을 구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表 3>에 나타난 1860~80년 기간의 勞動生産性 31% 下落(年率 1.8% 下落)이 過大評價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앞 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예해방의 결과로 흑인노동공급이

<表 3> 美國南部的 農業勞動 一人當 產出 (1860~80年)

	農業 所得 (1880年 價格 백만 달러)	農業 勞動力(천 명)	勞動 當 所得 (1880年 價格 달러)
1860	648	2,833	228.7
1880	630	3,978	158.4

資料 : Easterlin(1960, p.100; 1975, p.110).

同期間 28.3~37.2% 減少하였으며 이것이 감안되지 않은 만큼 노동생산성 하락의 크기가 高評價된다는 것이다[Ransom and Sutch (1977, pp.44-6, 232-6)]. 이들이 주장하는 노동 활동참가율의 감소를 年率로 계산하면 1.97% 정도이고 이 기간 λ_n 와 λ_n 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1)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0.8 = 0.72(-1.82) + 0.28\dot{W}_n + \dot{p}$$

$$\text{즉 } \dot{W}_n = 1.82 - 3.57\dot{p} \tag{2}$$

따라서 $\dot{p} = -1.97$ 이면 $\dot{W}_n = 8.86$ 이나 되어 이와 같이 높은 非農業部門의 生産性向上率은 여타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가 없다[Wright (1986, p.61); Easterlin (1960, pp.97-101)]. (2)식이 의미하는 바는 현실적인 \dot{W}_n 의 수준 2% 이하에서 \dot{p} 는 오히려 양수이거나 0에 가까워지게 된다. <表 4>는 \dot{p} 가 -0.5%보다 작아질 수 없으며 勞動活動參加率의 변화는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表 4> \dot{W}_n 에 따른 \dot{p} 의 값 (單位: %)

\dot{p}	\dot{W}_n	\dot{p}	\dot{W}_n
-2.0	8.96	-0.05	2.00
-1.5	7.18	0.0	1.82
-1.0	5.39	0.5	0.30
-0.5	3.61	1.0	-1.75

註: (2)식에서 계산.

농업부문의 勞動生産性 變化는 가격지표로부터도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이는 賃金變化率과 農산물 價格指數變化率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可用한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농업임금이 1860년에는 13.40달러 1880년에는 9.26달러이며[Lebergott (1964, p.539)], 同期間 동안 農산물가격이 5% 정도 상승하였으므로[Towne and Rasmussen (1960); Moen (1990)] 20년간 勞動生産性 下落은 34% 정도인 것으로 추계된다. 즉 $(9.26/13.40)/1.05 = 0.66$. 이렇게 계산한 勞動生産性 推計는 노동력공급 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實質賃金은 실제로 고용된 노동자의 생산성에만 依存하기 때문이다. 가격지표에서 추계한 노동생산성 하락의 크기가 <表 3>에서 계산한 생산성 하락의 크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은 1860~80년 간에 勞動力參加率의 대규모 減少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전쟁 직후 노예해방의 영향으로 勞動供給이 대량으로 減少하였다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으나 이들 노동활동을 떠난 노동력이 1880년까지는 戰前 水準으로 노동공급을 回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860년 센서스와 1880년 센서스 原資料에서 추출한 標本(Parker-Gallman 표본과 Ransom-

〈表 5〉 成人男子의 勞動力으로 환산한 勞動生産性 (1860년 不變價格)

		觀 測 值 數	產 出 / 勞 動 (달러)
1860年	全 體	3,954	273
	奴隸非所有農	1,884	186
	奴隸數 1~5名	1,373	223
	奴隸數 16~50名	565	324
	奴隸數 51名 以上	132	339
1880年	全 體	8,445	156
	白 人	5,262	178
	自營農	3,923	180
	定額小作	391	230
	分益小作	948	134
	黑 人	3,183	117
	自營農	800	113
	定額小作	957	111
分益小作	1,426	122	

資料 : Parker-Gallman 표본 및 Ransom-Sutch 표본에 공통된 8개 州 자료에서 계산. Moen(1990)참조.

〈表 6〉 (4)식을 위한 資料

	Q(백만 달러)	L(천 명)	K(백만 달러)	T(백만 에이커)
1860年	648	2,833	95	68
1880年	630	3,978	77	86

資料 : Easterlin(1960, p.100; 1975, p.110), U.S. Bureau of Census(1895).

Sutch 표본)을 비교분석하면 生産性變化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880년 표본의 작성방식의 미숙성으로 인하여, 계산된 生産性 數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1860~80년간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무려 43%나 된다. 〈表 5〉에서 1860년의 經營規模別 및 1880년의 經營形態別 指標를 관찰하면 勞動生産性 下落의 大宗은 16人 이상의 노예를 고용한 플랜테이션의 해체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규모 백인농가의 경우 생산성의 감소는 약 5%에 불과하며 생산성 하락의 대부분은 흑인농민들의 범주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戰前에는 주로 奴隸制 대농장에서 속박된 형태로, 戰後에는 소규모 自營農 혹은 小作農의 형태로 일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인종별 생산성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위 組別課業(gang-system) 플랜테이션의 解體에 따른 勞動強度의 低下를 의미한다.

勞動生産性 下落의 대부분이 조별과업 플랜테이션의 解體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은 또 다른 접근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즉 (3)식에 의해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總要素生産性의 下

落에 의한 부분과 要素配合比率의 變化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 것이다.

$$Q/L = G(K/L)^{\alpha_K}(T/L)^{\alpha_T} \tag{3}$$

단 G 는 각 요소생산성의 幾何加重平均指數로 나타낸 중요소생산성, Q 는 총생산, K , L 과 T 는 각각 자본, 노동 및 토지투입량이고 α_K 와 α_T 는 총산출의 자본투입에 대한 彈力性 및 토지투입에 대한 彈力性을 나타낸다[Fogel and Engerman (1974, Vol. 2, pp.126-31)].

(3)식을 成長率로 전환하면

$$\dot{Q} - \dot{L} = \dot{G} + \alpha_K(\dot{K} - \dot{L}) + \alpha_T(\dot{T} - \dot{L}) \tag{4}$$

(4)식에 대입될 자료는 <表 6>에 제시되어 있으며 $\alpha_K=0.17$, $\alpha_T=0.25$ 로 추계하였다[Fogel and Engerman (1974, Vol. 2, p.143)]. 年平均成長率 수치를 적절히 대입하면

$$-0.14 - 1.71 = \dot{G} + 0.17(-1.04 - 1.71) + 0.25(1.18 - 1.71)$$

이 되어 노동생산성 하락의 약 68%가 總要素生産性 下落에 기인한 것이고 나머지 32% 정도는 노동단위당 자본과 토지, 특히 勞動當 資本의 下落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요소를 결합하는 생산조직의 변화, 여기서는 組別課業 플랜테이션의 해체가 노동생산성 하락의 70% 가량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전쟁후 20년간 南部經濟의 成長을 遲滯시킨 주된 要因이 농업노동생산성의 하락이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규모 플랜테이션의 해체라면 그 이후 南部經濟의 回復要因도 농업부문의 재편에서 찾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플랜테이션의 붕괴 이후 소작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小作率이 1880년에 이미 南部에서는 36.2%에서 1930년의 55.6%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은 主知의 사실이다[梁東然 (1986)]. 小作比率의 增加趨勢는 차후 기회의 분석 대상으로 미루기로 하더라도 우리가 다루는 시기, 즉 남북전쟁 이후 1880년까지 소작제가 정착하는 과정에 대하여 잠정적인 언급을 시도하여도 좋을 것이다. 노예해방과 함께 플랜테이션이 해체되면서 임금노동을 이용한 대규모 경영이 勞動統制의 어려움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자 分割貸與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가족단위의 小經營의 定着과 함께 小作率이 늘어가는 것은 農業部門의 기본적인 脆弱性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맺 음 말

남부경제의 정체를 해명하는 일은 우선 북부와의 不均等成長의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의 地域的 差別 및 착취관계로 이해하려는 접근을 살펴보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重商主義的 獨占, 銀行制度에서의 差別 등의 논란으로 발전시키려는 傳統的 傾向이 있

으나 비교적 온순한 見解에 입각한다면 地域的 不均衡 및 착취라는 것은 市場機構의 미흡함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결국 상대적 빈곤이나 공업화의 지연 등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要素市場의 移動性缺如 문제로 회귀된다[Parker (1980)]. 남북전쟁 직후 20년간 남부의 相對的 停滯要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단기적인 설명과제라고 한다면, 이들 要素市場 移動性缺如說은 이 시기에 벌어졌던 地域的 格差가 왜 더 빨리 해소되지 못했는가 하는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관한 최근의 가설을 보면, 전후 南部經濟의 특징적 모습은 남부가 分離된 勞動市場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南部의 勞動市場은 같은 기간 활동적이던 全國勞動市場 및 國際的 勞動市場에서 分離되어 있었다고 한다.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戰前의 노예제하에서부터의 경제, 사회, 문화구조로부터 기인하였다고 하며, 그것은 전후 南部經濟를 規定했을 뿐만 아니라, 남부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함의까지 담고 있다. 남부의 경우 국제시장과 직접 연결되어 「特產物」을 직접 생산하였으므로 賦存條件이 너무나 달랐던 북부와는 「要素價格의 均等化」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分斷勞動市場」은 남부의 노동의 이동성이 제약을 받았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부로의 이민을 낳고 인종간 「非熟練勞動」의 임금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만들 만큼, 市場메카니즘이 작동하였던 「市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북부와의 경제적 격차도 좁힐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勞動市場의 分斷은 자본시장의 분단까지 초래하여 南部經濟의 혁명적인 變化를 抑制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Wright (1986)].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북부자본의 지배이건 생산요소시장의 이동성결여이건 간에 이와 같이 남부경제가 오랫동안 북부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남부인들 자신의 책임인 면도 있다. 오랜 地方主義的 농경사회전통에 젖어 「資本主義的」經濟를 추구하지 못했던 탓을 당시 남부사회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계층에 돌려야 할 터인데, 남북전쟁 이후 南部의 社會構造를 把握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두 見解만을 소개하고 논의의 시발점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Woodward, Woodman 등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에는 戰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급, 즉 자본가와 노동계급이 대두하였고, 이로 인해 古典的 資本主義的인 「새로운 南部」가 탄생한 것으로 본다. Woodman(1977)은 戰後 南部 小作制의 擡頭 및 그 비율의 증가를 賃勞動階級의 창출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소작제가 생산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分益小作으로 표준화되어 가는 경향을 들었다.

이에 반해서 Wiener(1979)는 戰後 남부에 대두한 계급은 생산과정상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戰前 계급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그는 노예제의 遺制가 온존하면서 勞動抑

歷的 社會經濟體制가 유지되었던 남부의 발전과정을 Barrington Moore의 용어를 빌어 「프러시아적 경로」라고 규정하고, 고전적 자본주의적 경로와는 質적으로 다른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戰後 南部 小作農은 생산수단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결코 分益小作으로 표준화되어 가는 경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작제의 확산을 「자유로운」賃勞動階級の 創出過程으로 볼 수 없으며, 남부에 古典的 資本主義體制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노동계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작제가 대두했으며 勞動移動을 극도로 제약해서 소작농이 「속박」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대한 근거로 「부랑법」 등의 법제도, 광범위한 채무노예의 존재, 穀物留置權制를 들었다. 원래 Moore의 「프러시아적 발전」 개념에는 南部 「유커」 계급과 北部 産業資本家階級과의 보수연합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Wiener는 그것을 그의 논의에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고전적 임노동 창출이나 프러시아적 경로를 주장하는 측을 막론하고 남북전쟁 이전의 사회구조를 대규모 농장주, 빈농, 그리고 노예로 구성된 前近代的인 전통사회로 해석하는 듯이 보인다. 前者의 경우 이것이 와해되면서 자본제의 길이 열렸다고 하며 南部의 長期에 걸친 相對的 停滯는 후발자본주의의 속성에 의해 설명한다. 後者の 경우는 대농장주가 변신한 대지주의 경우 前近代的인 남부의 전통에 사로잡혀 남부의 工業化(또는 근대적 경제 발전)를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학설에 따르면 戰前의 남부사회가 「대농장주—빈농」이 아니라 「노예소유주—요오맨」의 階級構成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노예소유주, 특히 대농장주들이 「資本主義」 발달의 선봉에 나섰고 요오맨層이 남부의 전통의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들의 정치력을 동원하여 자본주의화에 反旗를 들었다고 한다[梁東休 (1987)]. 그렇다면 전쟁후의 회복 지연은 이들 요오맨층의 몰락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란 말인가. 자본주의적 農民分解가 늦어져서 工業化가 늦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고전적 자본주의론자들의 해답은 무엇인가. 새로운 자본가계층의 연원을 어디에 두는가.

결국 본문에서 제시한 분석이 맺음말에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없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시사점을 더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기간의 분석이 마무리된 후의 작업은 1880년대 이후의 小作制 膨脹, 작물배합조정, 奴隸制의 遺制 청산 및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1890년대의 工業化, 더 나아가서는 뉴딜政策時代의 농업관계 재편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梁東休, "Farm Tenancy in the Ante-Bellum Northern United States," 『經濟論集』, 第25

卷 第 1 號, 1986.

_____, 「美國南部經濟的發展：其一, 1840~1860」, 『歷史學報』, 第116號, 1987.

U.S. Bureau of the Census, *Report on the Statistics of Agriculture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95.

Bode, A., and Ginter, D., *Farm Tenancy and the Census in Antebellum Georgia*,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Easterlin, A., "Interregional Differences in Per Capita Income, Population, and Total Income, 1840~1950," in Conference on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Trend in the American Economy in the Nineteenth Century*,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2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_____, "Farm Production and Income in Old and New Areas at Mid-Century," in D. Klingaman and Richard K. Vedder (eds.), *Essays in Nine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The Old Northwest*,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1975.

Engelbourg, S., and Schachter, G., "Two 'Souths': the United States and Italy since the 1860's,"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Vol. 15, Winter 1986.

Fogel, R.W., and Engerman, S.L.,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Boston: Little, Brown, 1974.

Goldin, C., and Lewis, F., "The Economic Cost of the American Civil War: Estimat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35, June 1975.

_____, "The Postbellum Recovery of the South and the Cost of the Civil War: Comme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38, June 1978.

Lebergott, S., *Manpower in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Record since 1800*, New York: McGraw-Hill, 1964.

Moen, J.R., "The Change in the Productivity of Southern Agriculture, 1860~1880," in R.W. Fogel and S.L. Engerman (eds.), *Without Consent or Contract: Technical Papers on Slavery*, New York: Norton, 1990.

Parker, W., "The South in the National Economy, 1865~1970,"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6, April 1980.

Ransom, R., and Sutch, R., *One Kind of Freedom: The Economic Consequence of Eman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Temin, P., "The Postbellum Recovery of the South and the Cost of the Civil War,"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36, December 1976.
- _____, "Patterns of Cotton Agriculture in Post-Bellum Georgia,"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3, September 1983.
- Towne, M.W., and Rasmussen, W.D., "Farm Product and Gross Investm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Conference on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Trend in the American Economy in the Nineteenth Century*,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2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Weiman, D., "The Economic Emancipation of the 'Non-Slaveholding' Class: Up-Country Farmers in the Georgia Cotton Econom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5, March 1985.
- Wiener, J.M.,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merican South, 1865 ~1955,"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84, October, 1979.
- Woodman, H., "Sequel to Slavery: The New History Views of the Post-Bellum South," *Journal of Southern History*, Vol. 43, December 1977.
- Wright, G., *Old South, New South: Revolution in the Southern Economy since the Civil War*, New York: Basic Books, 1986.